



1

2

3

1 동산 2 임존성 3 예당저수지

## 역사와 문화 숨결 가득한 백제부흥군길

백제부흥군길은 다섯 개 테마로 구성된 내포문화숲길의 하나다. 백제부흥전쟁의 중심에 있던 홍성 오서산의 복신굴, 장곡산성, 예산 임존성, 무한산성을 거쳐 당진의 아미산까지 걷는 코스로 이어진다. 내포문화숲길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내륙 깊숙이 발달한 하천을 이용해 상거래와 문화의 전파가 왕성히 이뤄졌던 내포문화권(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역사·문화 유적을 잇는 충남 최대의 장거리 트레일이다. 길이는 무려 320km에 달한다. 백제부흥군길에 가면 역사의 숨결이 가득한 길을 따라 펼쳐지는 가을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우로 유명한 예산군 광시면에서 출발해 무한천과 마을 길을 걷다 보면 백제 부흥 전쟁의 중심지였던 봉수산 임존성에 다다른다. 성곽을 따라 한 바퀴를 돌면 예당저수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찾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봉수산을 내려와 만나는 대홍슬로시티, 우리나라 여섯 번째로 지정된 슬로시티를 따라가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배를 타고 와 묶어 놓았다는 전설이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배맨나무로 불림)와 꽃향기가 가득한 봉수산 수목원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대홍을 거쳐 예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는 예당호 데크길이 완성돼 예당호 위를 걸을 수 있다. 예당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예당호 출렁다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예산 무한천을 따라 걷다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추사고택을 만날 수 있다. 김정희 선생이 '소봉래'라 이름 지은 용산에 가면 추사의 필체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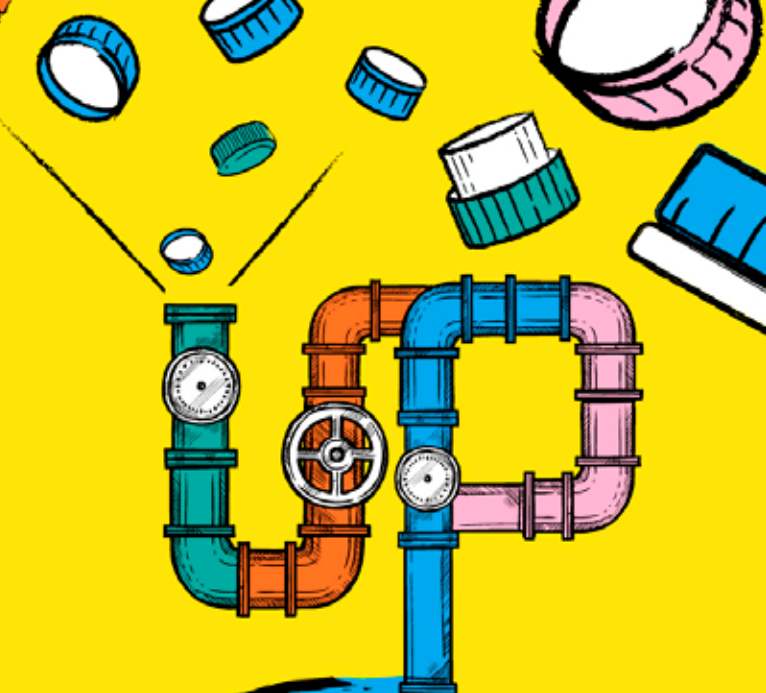
당진에 가서 아미산에 오르면 '내포망' 당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답다고 해 붙여진 이름처럼 산세가 험하지 않고 곱다. 탐방로도 흙길과 나무 데크, 돌길, 오르막과 내리막길 등으로 다양해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미산을 시작으로 다불산을 거쳐 몽산까지 세 개의 산을 타고 넘는 코스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종주를 하더라도 한나절이면 충분할 만큼 거리도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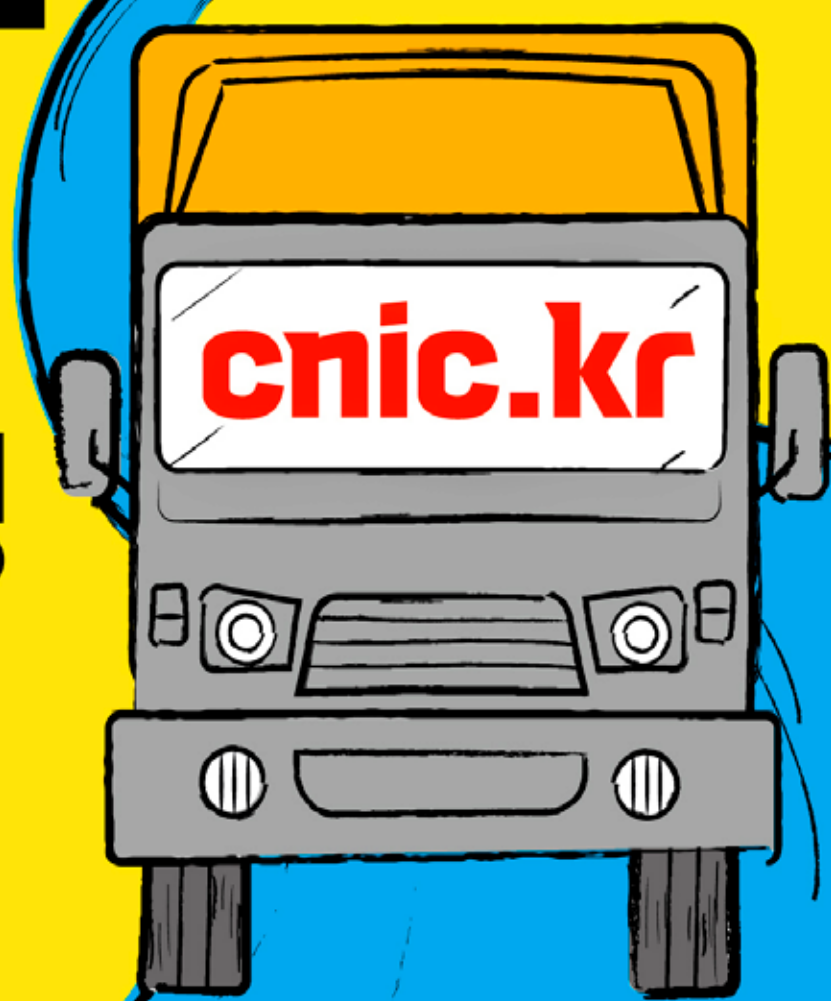
여유롭게 몽산성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풍악루, 군자정, 천연기념물로 수령이 1천100년 된 은행나무, 면천향교 등의 문화자원을 품고 있는 면천읍성이 나와 걷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면천읍성에서 고풍스러운 성벽을 따라 우거진 자연 속에서 가을 분위기를 즐기고 예스러운 근·현대 건물에서 멋진 사진도 찍으며 레트로 시간여행도 할 수 있다. ❶

# 충남의 겨울 여행택



##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클래스!



홈페이지 [cnic.kr](http://cnic.kr)  
문의 041-557-5041